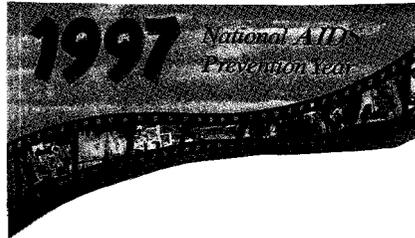


에이즈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동반자들



장 순 복 /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본회 조사연구위원

‘에이즈를 위해 국경을 초월한 동반자들’ 이는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 국제대회의 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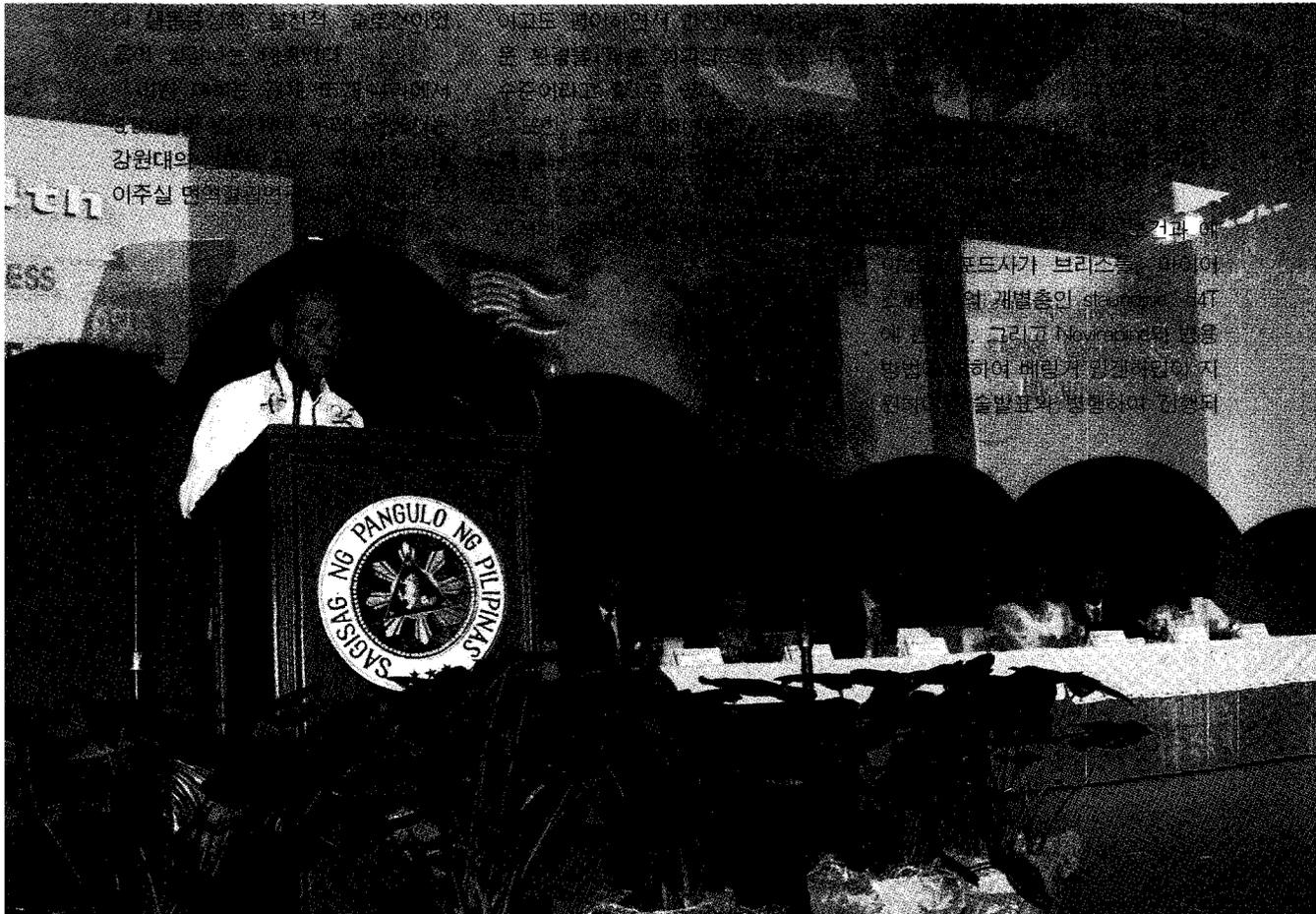
지난 1996년의 캐나다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에이즈대회가 “세계는 하나! 하나의 희망!”이란 주제로 추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이즈 국제대회는 보

영한 교수, 적십자사의 조인재 과장 등이 참가했으며 본인은 우리나라 AIDS감염자 관리와 경험에 관한 연구물을 포스터로 제작·발표하였다.

이번 대회가 열렸던 국제회의장은 건축구조의 견고성과 공간의 넉넉함, 그리고 구조상의 합리적 배치 등이 주위의 공원환경과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인접한 왓슨 필리핀 플라자 호텔등과 연계성을 유지하는 효율적

지역으로의 세계적인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해오던 오랜 세월 국제대회를 유치했던 막강했던 과거가 엿보였으며 필리핀 국민들도 30~40년전에 필리핀이 일본만큼이나 선망의 나라이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회의장 입구에서는 어떠한 화려한 장식이나 내보이기 위한 장치는 없었지만 필리핀의 Gabriel Barredo의 작품인 에이즈환자의 고통을 묘사한



었다.

관련기술구축워크샵에서는 상담, 성별민감성과 성욕구, 기화감염의 진단과 관리, 성병관리의 증상, 중심적 접근, 인권침해의 서술과 감사, 정보 센터의 구축 등이 진행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에이즈 관련 정보 등은 기업체 단위에서 전시되었다.

기술구축워크샵의 메뉴도 지난 캐나다 밴쿠버의 에이즈 대회에 비하여 좀 더 발전된 주제의 내용을 다루어서 아주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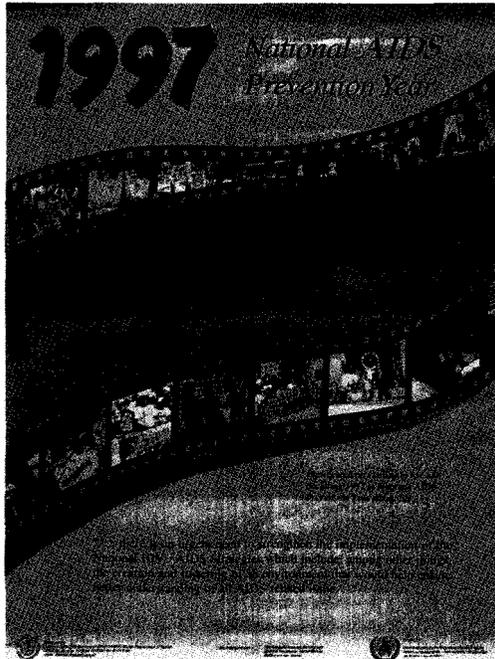
“아시아에서의 에이즈 시계는 촉각을 다투며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다.”

전반적인 학술발표의 영역은 “왜 아시아 태평양에 에이즈가 만연하는가?”라는 주제에서 시작되어 에이즈 유엔 프로그램 실행이사인 스위스의 Peter Piot가 에이즈 문제의 정도, 관련 요인과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할 이유에 관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격히 대두되는 에이즈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책적 사명이 가장 우선적인 사할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본인이 국내 에이즈 관리자들에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정부의 수동적 정책이라고 나타난 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할이라고 본다.

그는 호주, 뉴질랜드, 태국에서는 주도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에이즈 문

제가 성공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매일 8,500명이 새롭게 발생되고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과 이중에 90%가 개발도상국에의 발생됨을 주지시키고 범세계적 감시결과에 따

특히 감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감염자가 공개석상에 나와서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감염자를 위한 옹호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제4차 아시아·태평양 국제 에이즈 대회 포스터

면 세계적으로 2천3백만(1996년말 통계)의 감염자가 있는데 그 중에 3백 10만은 1996년말 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각국이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2년내에 그 수가 두 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일개나라의 보건부와 국가별 문제가 아니고 지구공동체의 문제라고 역설하였다.

지금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활

동을 개시할 결정적 시기이며 이는 아프리카와 같은 끔찍한 비극에 직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프리카는 현재 1천 4백만명의 감염자가 있으며 2010년에는 영, 유아

사망율을 75%로 예견하며 에이즈가 강타한 지역의 영·유아

사망율은 100%에 달하는 지역도 있게 될것임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은 인도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감염분포인 3~5백만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에이즈 감염발생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던 나라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는 ‘침묵의 전염병’의 저돌적 공격이 뒷통수를 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1994년까지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중국의 에이즈 감염율이 급격히 상승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발생국으로 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우리를 전율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감염되지 않은 자의 소리에 대비하여 감염자인 Liza Enrquez는 Peter Piot와 나란히 나와 주제강연을 감염자의 목소리로 하였다.

Liza는 감염자 단체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특히 감염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감염자가 공개석상에 나와서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감염자를 위한 옹호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

감염자를 위한 교육기능은 정책적 배려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배려가

없는 것은 감염자들의 행동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책자들은 스스로 에이즈 검사를 했다고 나설 수 있어야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에이즈에 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보편적 수용자세를 취한 것과 그들도 감염되어 있을 수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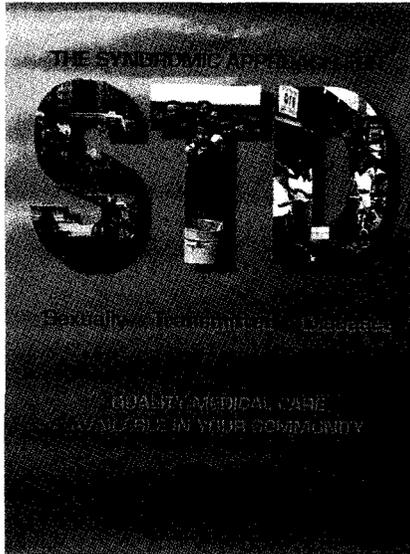
또한 현재의 법조항이 사실상 에이즈 확산을 예방하거나 중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대중을 각성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할 뿐 아니라 어떠한 노력도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에이즈예방 문제를 건강관리 접근방식에 국한하기 때문이므로 에이즈 예방대책이 행동수정을 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다뤄지고 세워져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와 같이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에이즈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산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인상적으로 가르쳐 사회적 관계속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Liza는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에이즈라는 질병은 침으로 나를 인간되게 하는 질병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함으로써 모든 청중이 자신의 본성속에 숨어 있는 모습을 들여다 보게 하였다.

생명을 찬양하네



맑고 추운 창공을 향하여
새는 날개를 활짝 펴라
나르는 물결밑에는
돌고래와 바닷말 모래를 가로 질러
가네
축제의 소리를 드높이는 소리 들리네
이땅의 구석구석에서는 제각기 다른
북을 쳐가며
각자의 비전과 빛나는 정신으로
꿈꾸는 이들이 축제에 달려오는 인
파가 보이네
생명의 축제
생명의 축제
국경을 넘어서 생명의 존엄을 선언
하며
생명을 탐구하며
새끼손가락을 걸어 미래를 약속하며
손에 손잡고
자장가를 부르자
생명의 죽임과 경시함을
함께 손잡고

모든 국가들을 드높이 계양하고
소리 높혀 팔짱 끼고 서로 마주 보며
영혼의 깊은 속에서부터

생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자
갓가지 새로운 생각들이 공중에
기득하며

저 창공의 끝까지 높아 가네
새로운 길을 찾아가며
점점 더 찬양 속으로 몰입하네

생명을 찬양하라
모든 국가들이 일어나라
생명을 찬양하라
생명을 탐구하라
새끼손가락 걸어 미래를 약속하
며

손에 손잡고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며
생명을 죽임과 경시함을
함께 찬양하라

Freddie Sarntus 소년소녀 합창단
이 부른 이 주제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는 건강할때에 생명있음을 찬
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플때에도 생명있음을 찬
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에이즈에 감염되었어도 생
명있음을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에이즈에 감염된 이후에도
생명있음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상의 참관기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에이즈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정말 예방이 가능한 정책인가를 점검하고 예방정책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을 행동수정하려면 인간의 나약상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접근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며 근본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자체를 찬양할 수 있는 검토했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성찰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음을 나누고 싶다. A